

비대면 수업환경에서 대학생의 핵심역량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연구: 학습몰입과 학습만족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 은 경 이 기 학[†]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환경에서 대학생의 적응 향상을 위해 핵심역량을 통한 학습몰입과 학습만족의 순차적 매개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21년도 2학기에 서울 소재 Y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275명(남85명(30.9%), 여189명(68.7%), 성별을 밝히지 않은 기타1명(0.4%))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핵심역량, 비대면 수업환경에서의 학습몰입, 비대면 수업환경에서의 학습만족,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핵심역량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비대면 수업환경에서의 학습몰입과 비대면 수업환경에서의 학습만족의 순차적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습몰입과 대학생활적응의 직접 경로와 핵심역량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학습몰입의 간접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비대면 수업환경에서 대학생의 핵심역량을 고려하여 학습몰입과 학습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적 처지나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

주요어 : 핵심역량, 대학생활적응, 학습몰입, 학습만족, 비대면 수업환경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기학,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Tel: 02-2123-4877, E-mail: khlee2445@yonsei.ac.kr

Copyright ©2022, Korean Association of School Psycholog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코로나19의 확산은 우리 사회에 큰 혼란과 변화를 가져왔다. 2021년 국내 경제 성장률은 2019년과 비교하여 -1.1% 감소했으며(한국은행, 2021), 거리 두기 및 사적 모임 제한으로 인해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이혜은, 이순희, 2021). 또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기업 재직자 30%는 재택근무를 하며(조선비즈, 2021), 2020년 상반기부터 2022년 현재까지 학교 수업은 온라인 수업으로 변형되었다. 그중에서 교육 현장은 가장 많은 변화가 발생한 영역이다. 중·고등교육기관은 실험 연구 수업과 기타 실습 활동을 포함한 모든 대면 수업을 취소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다수 학생이 자택에서 원격으로 공부하고 있는 현실에 처해있다(Rahiem, 2020).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20)에 따르면, 2021년 7월 26일 기준 2020년도의 대학의 원격강좌 수는 전년 대비 2674.7% 상승하였고, 대학의 원격강좌 수강자 수는 전년 대비 868.0%로 증가하였다.

현 온라인 원격수업으로 인하여 많은 학생은 교육 방식 및 대인관계 영역의 대학생활 적응에 고충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최현실, 2021). 대학생활적응이란 대학생들이 대학이라는 환경에서 경험하는 여러 요구에 학업적·사회적·정서적으로 적응 및 대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개인 내적인 적응과 그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적응으로 구분된다(김은정, 1992; 정명기, 2010). 학생들은 대학에서 학업 성취, 사회적응, 심리성숙 등의 과업을 수행하며, 이는 사회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데 중요한 과정으로 작용한다(이경아, 손희원, 2021).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은 대학생활적응에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활적응에 대해 알아본 김연정(2022)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 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은 학업·대인관계·정서·학과적응의 4가지 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또한 황승연(2022)의 연구에서 코로나19 이전 대학생활적응과 코로나19 이후 대학생활적응을 비교한 결과, 코로나19 이전보다 코로나19 이후 대학생들은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특히 박정혜 외(2022)의 연구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학생활적응이 삶의 만족, 진로장벽, 진로결정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활적응은 사회에서의 성공적인 적응을 예측하는 지표임에 따라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한편,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대학생들은 부모의 울타리를 벗어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게 된다(이숙정, 유지현, 2008). 대학은 학문적인 교육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삶의 과제 속에서 자신이 가진 지식, 태도, 소통능력 등을 활용하여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로서의 핵심역량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고등교육 기관이다(김현욱, 2021). 대학생들은 대학에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되고 다양한 학업적·사회적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장연주, 2007). 이러한 대학에서 경험하게 되는 문제에 적응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식뿐만이 아니라 인지적 측면과 비인지적 측면을 갖춘 종합적인 핵심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박레아, 2016).

Grus(2012)는 핵심역량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통합적인 과업으로 정의했으며, 이를 교육 및 전문성을 통하여 양성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과 자질로 보았다. 고등교육에서 정의하는 핵심역량이란 교육을 통해서 길러지는 지

식, 태도, 기술 등을 의미한다(김현욱, 2021). OECD의 DeSeCo (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전 세계 다수의 대학이 핵심역량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사고능력을 향상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진미석, 손유미, 주휘정, 2011).

핵심역량은 의사소통, 기술, 리더십, 팀워크,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진로 개발 등 일곱가지 하위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Casner-Lotto & Barrington, 2006; 이경아, 2021), 이러한 핵심역량의 하위요소로 개인의 삶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친다(김동일 외, 2009; 최정윤, 이병식, 2009). 따라서 대학생은 사회 진출 후 자신의 직무 수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 속에서 맥락에 맞추어 기능할 수 있는 역량을 대학생활동안 길러야 한다(김기홍, 이경희, 2020). 이는 사회진출을 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급변한 대학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의 역량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핵심역량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각 대학의 인재상에 맞추어 진단 도구를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어왔다(김지원, 2019; 이성하, 최명숙, 정진화, 2020; 임경수, 이연주, 2021). 따라서 대부분의 국내 선행연구 결과는 코로나19 상황을 설명하고 적용하기에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다. 한편, 일부 연구에서는 이러한 진단 도구를 활용하여 핵심역량과 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바 있다(박례아, 양명희, 2021; 이경아, 손희원,

2021; 황수영, 2021). 정명기(2010)의 연구에서 대학생활적응에 따른 핵심역량 차이를 알아본 결과, 대학생활적응을 잘하는 학생들과 잘하지 못하는 학생들 간의 핵심역량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혀낸바 있다. 또한, 핵심역량의 하위요인 중 하나인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이숙정, 유지현, 2008; 이재명, 2009).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핵심역량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이 존재하지만(박례아, 2016; 박례아, 양명희, 2019; 정명기, 2010), 아직 코로나19 이후의 급변한 변화 속에서 핵심역량과 대학생활적응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이경아, 손희원, 2021; 황수영, 2021). 또한, 핵심역량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가 있으나(이경아, 손희원, 2021; 황수영, 2021), 해당 관계에 영향을 주는 세부적인 메커니즘은 여전히 탐색 중에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대학생활은 일반적인 대학생활과 차이가 있음에 따라 어떤 요인이 해당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대학생들은 대학생활이 제한되며 대학생활은 대부분 온라인 수업에 국한되어 있다(Li et al., 2021). 코로나19 확산 이후 온라인 원격수업으로의 전환은 대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저해하는 문제점으로 인해 학업적응 및 기술습득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아, 손희원, 2021). Händel 외(2002)의 연구에서는 디지털 기기를 통한 온라인 학습에 대한 준비가 된 학생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더 낮은 수준의 긴장감, 불안과 걱정, 그리고 사회적·정서적 외로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비대면 강의로의 전환은 학문적 지식 습득뿐 아니라 대인관계 형성에 대한 제약을 가져왔다. Li 외(2021)의 연구에서,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교수자 및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감소하고, 학습 방해요인이 증가하였으며, 원격 수업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이는, 대학 강의실과 같은 학습환경이 아닌 장소에서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대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위의 선행연구 결과로 추론해 볼 때, 학생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활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수업에서 긍정적인 정서경험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원활한 비대면 수업에서의 적응을 위해서는 개인의 내재적 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이 필요하다(정연택, 2022).

학습몰입은 학습자가 학습에 완전히 몰두하여 최적의 기능을 수행하는 상태로 볼 수 있으며,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집중도, 흥미, 노력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Csikszentmihalyi, 1990). 학습몰입은 학습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발하며 학습 이외에도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기존중감, 행복감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 경험이 동반된다(Nakamura & Csikszentmihalyi, 2002). 더불어 몰입이란 어떤 외부적인 보상이나 목표가 필요하지 않는 내재적 보상 경험으로, 내재적 동기 구인이라고도 한다(Csikszentmihalyi, 1975).

선행연구에 따르면, 높은 학습몰입은 높은 학습만족과 관련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대학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보고하고 있다(김기홍, 2019; 김은주, 2020). 또한, 김안나와 이병식(2003)의 연구에 따르면,

학습자 스스로 보고한 수업에 대한 참여 및 몰입은 핵심역량 신장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비대면 수업환경에서의 학습몰입을 핵심역량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보고자 한다.

대학생활적응을 위해서는 학습몰입 뿐만 아니라 학습만족 또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최현철, 김수동, 2022). 학습만족은 학습자가 지니는 자신의 성취 수준에 대한 기대와 노력에 대한 결과가 일치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주관적 지표이다(전선영, 2013). 최현철과 김수동(2022)의 연구에 따르면 학습만족은 전반적으로 핵심역량,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의 학습만족이 높을수록 이와 관련된 핵심역량 및 대학생활적응 또한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학습몰입은 학습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박지혜, 이영서, 2018), 핵심역량의 향상 또한 학습만족을 정적으로 예측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유지은, 2019; 이광훈, 최홍섭, 2017). 이외에도 학습 과정에서 경험하는 학습실재감이나 학습몰입이 학습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도 존재한다(송운정, 조규판, 2015; 송윤희, 2014). 그러나 위에서 언급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학생이 자발적으로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학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수행되어왔다. 반면,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수업들이 비대면으로 강제 전환되거나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된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이상미 외, 2021).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가 예상되지만,

비대면 원격수업의 영향을 탐색하는 선행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단절된 대학 생활적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대학생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더욱 미비한 실정이다(이경아, 20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 환경에서 경험하는 인지적·정서적 요인이 핵심역량과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핵심역량과 대학 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비대면 수업에서의 학습몰입과 학습만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 학생들의 대학 적응력 향상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적인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역량

핵심역량이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 태도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통합적인 과업으로 정의된다(진미석, 2013). 이는, 직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교육 및 전문성을 통하여 길러지는 개인의 능력과 자질이다(Grus, 2012; Spencer & Spencer, 1993). 역량은 1990년대 후반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직업기초능력으로서 정의되었지만, 국제화와 급변하는 정보사회에서 다양성, 상호의존성, 연계성이 강조됨에 따라 개인에게 단순 기술 습득 이상의 적응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한 DeSeCo(Definition of Selection of Competence) 프로젝트를 통해 ‘핵심역량’으로 재정의 되었다(OECD, 2005). 이는, 지식과 인지적인 기술만이 아닌 사회적 행동적 요소를 모두 활용하여야만 다양한 상황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개

념이다.

‘핵심역량’(Core Competencies)은 지적인 역량, 관계적 역량, 자율성과 같은 3개의 범주로 정의된다(양지선, 2015; 진미석, 2012). 반면에, 고등교육에서의 핵심역량은 위에서 언급된 3가지 역량과 더불어 인지역량인 분석적 사고력과 종합적 사고력이 포함된다(진미석, 2012).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대학생의 핵심역량으로 학업역량, 자기관리역량, 진로직업역량, 대인관계역량, 시민역량 총 5개의 역량을 제시하였다(Jang, 2015). 이러한 5개의 중요 역량을 토대로 많은 대학교에서 학교의 인재상에 맞는 핵심역량 진단 도구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문제해결역량, 대인관계역량, 정보통신역량, 글로벌역량을 중심으로 측정하고 있다.

핵심역량과 관련된 요인을 살핀 선행연구에서는 핵심역량은 학교생활과 학업생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하병학 외, 2016), 핵심역량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대학생활적응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정명기, 2010), 핵심역량의 하위 요인 중 자기주도역량이 대학생활적응 증진에 중요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황수영, 2021). 결론적으로 핵심역량은 대학생의 적응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과 핵심역량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이경아와 손희원(2021)의 연구에서 코로나 시대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해서 정보통신역량과 문제해결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제언하였으며, 대학차원에서 이러한 역량강화 지원방안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적합한 경쟁력을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 코로나19 이후 핵심역량과 관련된 코로나 위기가 대학생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김혜영 외(2021)의 연구에서 친밀감 형성, 사회적 지원 제공, 상황 판단력 세 가지 역량이 코로나 이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역량들은 대학생 환경차이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즉, 핵심역량은 다양한 상황에서 적응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능력이기도 하지만, 안정적인 요인이 아닌 상황에 따라 성장할 수 있는 능력임을 나타낸다.

더불어, 비대면 수업환경과 핵심역량의 관계를 알아본 선행연구에서 비대면 환경에서 유의미한 학습은 의사소통역량, 전공·직무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홍성연, 유연재, 2020). 아직까지는 비대면 수업환경과 핵심역량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현재 핵심역량에 관한 연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다양한 맥락에서 대학생들의 핵심역량 수준에 따른 차이점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대학은 사회와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들을 육성시키기 위해 직업과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 갖춘 인재들 양성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은 기업이 인재에게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역량은 무엇이고, 어떠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요구되며(최병삼, 2016), 대학생의 핵심역량을 탐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핵심역량과 관련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왔지만, 대부분 각 대학의 인재상에 맞추어 진단 도구를 개발하는 데 있어 초점을 두고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김지원, 2019; 이성하, 최명숙, 정진화, 2020; 임경수, 이연주, 2021).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핵심역량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대학생들의 핵심역량 수준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시작된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의 경험이 어떻게 달라지며, 이를 통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은 다차원적인 현상으로 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학업 및 진로와 관련 활동을 시작하며 다양한 대인관계를 맺으며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이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 심리 환경적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을 의미한다(Baker & Siryk, 1984). Baker와 Siryk(1984)는 대학생활적응에는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신체적 적응, 그리고 대학에 대한 애착과 같은 요소를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 대학으로의 진학은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 선택부터 시작하여 학습전략, 진로계획 등과 같은 학업적인 요소와 친구 혹은 교수와의 사회적인 관계 또한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야 하는 새로운 환경이다. 급작스러운 환경변화로 인해 당황하여 일시적인 심리적 부적응 상태에 빠질 수 있다(장연주, 2008). 따라서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응적으로 발달해 가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대학생활적응은 개인과 환경의 내·외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학생활적응은 학생특성, 대학특성, 환경특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내적 특성이 환경에 의한 인지적·정서적 요인과 상호작용

하여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송진열, 2017).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의 학습몰입과 학업탄력성, 우연대처기술, 자기정체감, 진로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등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영미, 2019; 황혜지, 2017). 또한, 최현철과 김수동(2022)의 연구에서 핵심역량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대학생활적응과 코로나19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odd 외(2021)의 연구자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학습 환경으로 학생들의 심리적인 안녕감을 위협한다고 보고하였고, 홍세훈(2021)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경험하는 학업 스트레스는 대학생활적응과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경아(2021)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과 핵심역량에 대한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대학생들은 코로나19 이전의 대학생들보다 학업적인 적응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으며, 또한 대학생활적응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코로나19 상황은 대학생활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다수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은 육체적인 건강뿐만이 아닌 다양한 측면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에 관련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Pandya & Lodha, 2021).

대학에서의 적응은 대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대학생활 부적응은 학업적인 부적응 이외에도 대인관계 부적응과 같은 여러 방면의 부적응을 야기하게 될 수 있으며, 이는 대학을 벗어나 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강미영, 2012). 선행연구들에서 많은 대학생이 코로나19 환경으로 급변한 대학 생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 또한, 핵심역량과 같은 개인의 내적 특성에 따른 적응력 차이가 있는 만큼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역량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수준을 탐구하고, 이 관계에서 비대면 온라인 수업환경에서의 학습몰입과 학습만족이 어떤 매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학습몰입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면 수업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며, 많은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중에서도 학습몰입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는데, 한국공학한림원 인재양성위원회(2021)에 따르면, 5점 만점인 ‘비대면 수업의 효과와 만족도에 대한 조사’에서 교수 254명은 ‘학생들의 집중력 저하로 인한 어려움(3.99)’이 있었다고 보고하였으며, 학생 1,668명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하여 ‘집중력 문제(3.37)’로 어려움을 꼽았다. 또한, 코로나 종식 이후 원하는 수업의 수강 비율에서도 대면 수업(53%)이 온라인 수업(5.7%)을 앞질렀다. 이처럼 비대면 환경으로 인한 주의력 분산과 집중력 문제는 학생들의 학습몰입을 방해하는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비대면 수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연구가 학습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협력적이고 지속적인 학습을 장려하기 위한 ‘몰입’(flow) 개념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Chen, Gonyea, & Kuh, 2008; Joo et al., 2010; Skinner & Belmont, 1993). Csikszentmihalyi

(1975)는 ‘몰입’을 무의식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심리상태로, 몰입 상태의 사람들은 잡념을 걸러내고 자신의 잠재적인 능력을 충분히 표현하고 주관적인 만족감과 행복을 느끼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Csikszentmihalyi는 ‘학습몰입’ 또한 마찬가지로 개인이 학습과제에 집중하여 학습과제를 가장 이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학습몰입을 통해 개인은 탐구적인 학습에 필요한 높은 수준의 집중력과 참여를 촉진하는 심리적 상태로 제안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습몰입을 통해 대학생들은 학습 시간을 줄이고 학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배성아, 노수림, 2014; 최덕현, 김정균, 김성희, 2007; Csikszentmihalyi, Rathunde, & Whalen, 1993; Hoffman & Novak, 1996), 수업 활동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내재적 동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ebster, Trevino, & Ryan, 1993). 또한, 높은 학습몰입을 경험하는 학생들이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배성아, 노수림, 2014; 배양자, 박순희, 2019; 정애경, 김지심, 김정화, 2013). 이처럼 학습몰입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관련 요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 대학생활적응과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더불어, 학습몰입은 역량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으로 학업성취뿐만이 아닌 학습 과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박성익, 김연경, 2006). 핵심역량은 학습몰입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바 있다(김기홍, 이경희, 2020; 홍효정, 2020). 또한, 양시윤 외(2018)의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핵심역량과 학업역량을 알아본

연구에서 핵심역량은 학습몰입, 학업적 자기 효능감, 학습동기와 같은 학습태도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몰입은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 요인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한 중요변수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학습몰입이 매개변수로 갖는 연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남교민 외, 2021).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변인들 간의 직접적인 영향을 알아본 연구결과는 존재하지만, 핵심역량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학습몰입을 매개변인으로 본 연구는 전무하다. 하지만 핵심역량이 학교생활 및 학업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하병학 외(2016)의 연구에서 핵심역량이 학업생활요인인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의 핵심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학교 및 학업몰입을 높일 뿐만이 아니라,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이숙정(2011)의 연구에서 학업몰입은 대학생활적응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김기홍과 이경희(2020)는 학습몰입이 대학생의 학업활동, 진로발달, 그리고 대학생활적응을 매개하는 요인으로서 대학생의 핵심역량 발달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학습몰입이 핵심역량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몰입’이라는 개념이 소개된 이후 다양한 교육 환경에서 몰입이 학습자의 학습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아직까진 자발적이 아닌 강제적인 비대면 수업환경에서의 연구는 많지 않다(황선희, 박매란, 2021).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기반하여 학습몰입이 개인의 성취에 많은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연구와 적용은 온라인 수업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 유익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핵심역량에 따른 학습몰입이 대학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데 의의를 둔다.

학습만족

학습 상황에서의 만족이란 학습자들의 기대와 실제 얻게 되는 교육에 대한 결과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자의 내적 반응 또는 경험을 비교한 평가이다(Phillips, 1997; Sumaedi, Bakti, & Metasari, 2011). 이러한 만족은 학습 환경과 학습 내용 그리고 결과에 따라 학습자가 지각하는 긍정적인 정서적 만족 및 평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학습자에 따라 경험하는 학습 환경, 교육의 질 등에 따라 상이한 평가 반응이 일어난다(김성국 외, 2020).

선행연구에서 학습만족은 대학생활적응을 긍정적으로 예측하는 변인으로 밝혀진 바 있다(최현철, 김수동, 2022). 학습만족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습성과 향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학업적 정서적 자기효능감이 상승하여 결과적으로 적응적인 대학생활을 예측한다(이종훈, 김성환, 2015). 그와 반면에 학습만족 수준이 낮은 학습자의 경우 학습중도탈락과 같은 대학생활적응과 반대되는 부적응적인 요인과 관련이 있다(이종훈, 김성환, 2015). 즉, 학습만족은 학습자의 정서적인 충족을 통해서 형성되는 결과로 학습성과를 측정하고 대학생활적응 측정을 위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최부기, 전주성, 2011; 최현철, 김수동, 2022).

한편, 학습만족이 학습자가 지각하는 긍정

적 정서적 만족도를 의미한다면 핵심역량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으나, 학습만족과 핵심역량 간의 직접관계를 알아본 선행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하지만 학업만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변인과 핵심역량과의 관계는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조미경과 김미영(2018)의 연구에서 핵심역량에 미치는 요인은 교수-학생 상호작용, 학업성취도로 나타났다. 학습만족은 학습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널리 활용되고 있고, 핵심역량에는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 창의성, 가치관 및 태도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핵심역량이 학습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할 수 있다(유현숙 외, 2002). 또한, 최현철과 김수동(2022)의 연구에서 재학생교육만족도는 핵심역량과 다소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핵심역량은 학습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습몰입과 학습만족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박성익, 김연경, 2006)를 보면, 최적의 학습 경험 속에서 이루어지는 학습몰입은 필연적으로 학습만족 및 학습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온라인 학습 환경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높은 집중도를 발휘하게 하여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해주기에, 학습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학습만족이 학습자의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이러한 만족을 통해서 학습자가 얼마나 적응적으로 대학생활에 적응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개인이 가진 핵심역량

수준에 따라 비대면 수업에서의 학습만족으로 인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환경에서 학습몰입과 학습만족의 순차적 매개를 통해 대학생활적응과 정적인 간접관계를 형성할 것이다.

연구가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핵심역량 수준에 따른 비대면 수업환경에서의 학습몰입과 학습만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존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그림 1과 같은 모형을 토대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대학생들의 핵심역량은 대학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체적으로 핵심역량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대학생활적응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2. 비대면 수업환경에서 학습몰입과 학습만족은 핵심역량과 대학생활적응 사이를 매개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비대면 수업환경에서 핵심역량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학습몰입과 학습만족이 높을 것이고, 이에 따라 대학생활적응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3. 비대면 수업환경에서의 학습몰입과 학습만족은 대학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대학생의 핵심역량은 비대면 수업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시행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2021년 2학기에 진행되었다. 참여 대상자는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편의 표집으로 조사하였다. 모집한 총 300명 중 무성의하거나 부적절하게 설문에 임한 25명을 제외한 275명만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 85명(30.9%)과 여학생 189명(68.7%), 그리고 성별을 밝히고 싶어 하지 않은 1명(4%)이고, 평균 연령은 22.28세(SD=2.75)이다. 학년 분포는 1학년 82명(29.8%), 2학년 74명(26.9%), 3학년 56명(20.4%), 4학년 56명(20.4), 4학년 이상 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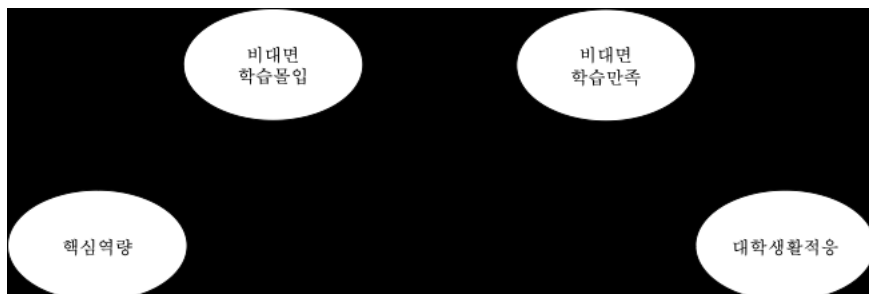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5%)이다.

측정도구

핵심역량

대학생 핵심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김현욱과 이현민(2021)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도구를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한국에서 대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공통적인 핵심역량을 진단하는 도구로서 핵심역량을 미래사회의 인재로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상황에 맞게 종합하고 활용하는 행동 성향으로 정의하였다(김현욱, 이현민, 2021). 주체적 차원, 객체적 차원, 사회적 차원으로 총 13 요인 5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측정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의 범위로 높을수록 높은 역량을 나타낸다. 주체적 차원은 자기이해, 진로개발, 자기개발, 자기관리의 하위역량의 19문항, 객체적 차원은 4 IR 기술활용, 정보처리, 정보탐색, 문제해결, 문해력의 22문항, 사회적 차원은 글로벌, 공감 및 소통, 시민의식, 협동의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김현욱과 이현민(2021)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전체 .971, 주체적 차원 .841~.877, 객체적 차원 .819~.895, 사회적 차원 .840~.894 였고, 본 연구에서는 .925, 주체적 차원 .844, 객체적 차원 .870, 사회적 차원 .792였다.

비대면 수업환경에서의 학습몰입

비대면 수업환경에서의 학습몰입을 파악하기 위해, 황바른(2021)이 강순정, 이동철과 김형길(2008), 석임복과 강이철(2007), Agrwal과 Karahanna(2000), Saade와 Bahli(2005)를 참고하여 만든 이러닝 환경에서의 학습몰입 설문지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가 학습과정에 몰입하는 정도를 측정했다. 총 7문항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문항 모두 Likert 5점 척도로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의 범위로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학습몰입을 나타낸다. 황바른(2021)에서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892였고, 본 연구에서는 .831이었다.

비대면 수업환경에서의 학습만족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온라인 학습에 대한 만족을 조사하기 위해 유민우(2021)와 주영주 외(2008)가 개발한 사이버대학에서의 강좌평가를 위한 측정도구를 재구성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총 9문항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9문항 모두 Likert 5점 척도로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의 범위로 높을수록 높은 만족 수준을 나타낸다. 유민우(2021)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868였고, 본 연구에서는 .852 였다.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Baker와 Sirky(1984)가 개발한 대학생활적응 척도 검사(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연세대학교 학생 상담소에서 번안하고, 황혜지(2021)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대학생활적응 검사는 Likert 5점 척도로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학생활적응을 잘할수록 총점이 높게 나타난다. 황혜지(2021)의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53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적응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50 였다.

자료수집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을 대상으로 자기 보고식 온라인 설문지를 통하여 수집되었다. 자료 수집은 2021년 2학기에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학과연구심의위원회(DRC)의 사전 승인받은 후 진행하였으며, 서울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수업을 수강하는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참가자들은 연구 참가 전에 연구 주제와 목적 및 필요성, 수집되는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 그리고 연구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부작용 및 위험요소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자유로운 참여와 중도탈락이 보장되었으며,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연구 동의서를 작성한 후 연구에 참여하였다.

분석방법

대학생들의 핵심역량 수준에 따른 비대면 학습 환경에서의 학습몰입과 학습만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에 필요한 모든 척도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각 척도별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를 산출 후, 기술통계 분석과 변인 간 상관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하였다. SPSS PROCESS macro는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매개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로, 가설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Hayes(2012)가 제안한 순차적 중다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순차적 매개효과 모형이란 연속적인 연결로 매개변인이 연결된 형태를 말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의 model 6을 이용하였다.

넷째,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정을 위하여 Hayes(2012)의 분석절차를 따랐다. SPSS 25.0 프로그램인 PROCESS macro에서 경로모형 검증과 함께 구현되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 모형에서 나타나는 모든 간접효과 (핵심역량 → 학습몰입 → 대학생생활적응, 핵심역량 → 학습만족 → 대학생생활적응, 핵심역량 → 학습몰입 → 학습만족 → 대학생생활적응)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 < .05$ 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 25.0 프로그램과 SPSS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등 기술 통계치와 변인 간 관련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왜도와 첨도의 경우 정규분포 기준에 적합한 왜도 ± 2 , 첨도 ± 7 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West, Finch, & Curran, 1995), 변인들의 평균값은 중앙치를 유지하고

표 1. 척도의 하위요인별 평균, 표준편차 및 하위요인 간 상호상관

	M(SD)	1	2	3	4
1. 핵심역량	16.48(1.84)	-			
2. 비대면 학습몰입	2.62(.80)	.314**	-		
3. 비대면 학습만족	3.47(.61)	.423**	.629**	-	
4. 대학생활적응	16.58(2.58)	.509**	.338**	.517**	-
침도		.256	.157	-.127	.024
왜도		.456	-.325	.245	.119

주. N = 275. ** $p < .01$.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자료는 정규성을 가정할 수 있다. 상관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핵심역량은 비대면 수업환경에서의 학습몰입($r = .314, p < 0.01$), 비대면 수업환경에서의 학습만족($r = .423, p < 0.01$), 대학생활적응($r = .509, p < 0.01$)과 정적인 상관, 비대면 수업환경에서의 학습몰입은 비대면 수업환경에서의 학습만족($r = .629, p < 0.01$), 대학생활적응($r = .338, p < 0.01$)과 정적인 상관, 그리고 비대면 수업환경에서의 학습만족은 대학생활적응($r = .517, p < 0.01$)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연구모형 분석

핵심역량, 비대면 수업환경에서의 학습몰입, 학습만족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핵심역량, 비대면 수업환경에서의 학습몰입, 비대면 수업환경에서의 학습만족, 대학생활적응 간 경로의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Hayes(2012)가 제안한 절차대로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우선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핵심역량의 회귀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_{(1,273)} = 95.696, p < .001$), 이 모형의 설명력은 26.0%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핵심역량의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B = .275, p < .001$), 이는 핵심역량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핵심역량에 대한 비대면 수업환경에서 학습몰입의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_{(1,273)} = 95.696, p < .001$), 이 모형의 설명력은 9.9%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비대면 수업환경에서의 학습몰입에 대한 핵심역량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B = .073, p < .001$). 이는 핵심역량수준이 높을수록 비대면 수업환경에서 학습몰입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대면 수업환경에서의 학습만족에 대한 비대면 수업환경에서의 학습몰입과 핵심역량의 회귀모형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_{(2,272)} = 112.087, p < .001$), 이 모형의 설명력은 45.2%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습만족에 대한 학습몰입($B = .540, p < .001$), 핵심역량($B = .057, p < .001$)의 영향 모두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핵심역량 수준과 학습몰입 수준이 높을수록 학습만족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끝으로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핵심역량, 비

표 2. 변인 별 경로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t	95% CI	
					Lower	Upper
대학생활적응	핵심역량	.275	.028	9.782***	.220	.331
	$F(1,273)=95.696, p<.001, R^2=.260$					
비대면 학습몰입	핵심역량	.073	.013	5.466***	.047	.100
	$F(1,273)=29.881, p<.001, R^2=.099$					
비대면 학습만족	핵심역량	.057	.011	5.283***	.036	.078
	비대면 학습몰입	.540	.046	11.641***	.449	.632
	$F(2,272)=112.087, p<.001, R^2=.452$					
대학생활적응	핵심역량	.191	.029	6.651***	.135	.248
	비대면 학습몰입	-.019	.144	-.134	-.303	.264
	비대면 학습만족	.880	.154	5.730***	.578	1.183
$F(3,271)=53.223, p<.001, R^2=.371$						

주. N = 275. *** p < .001.

대면 수업환경에서의 학습몰입과 학습만족의 회귀모형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_{(3,271)} = 53.223, p<.001$), 이 모형의 설명력은 37.1%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핵심역량($B = .191, p<.001$)과 학습만족($B = .880, p<.001$)의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한 반면, 학습몰입($B = -.019, ns$)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

았다. 이는 핵심역량 수준과 비대면 수업환경에서의 학습만족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수준은 높지만, 학습몰입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비대면 수업환경에서의 학습몰입과 학습만족을 투입하지 않았을 경우의 핵심역량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보다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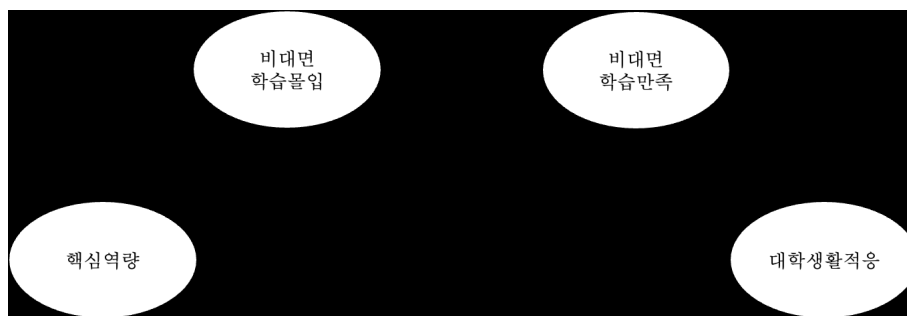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및 경로계수

주. N = 275. *** p < .001. 경로계수는 비표준화 계수이다.

습몰입과 학습만족을 투입하였을 때 핵심역량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졌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기 때문에 부분매개 모형이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B = .275, p < .001$; $B = .191, p < .001$) 이를 보다 가시적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대학생의 핵심역량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비대면 수업환경에서의 학습몰입과 학습만족의 매개효과

핵심역량과 대학생활적응 간 관계에서 비대면 수업환경에서의 학습몰입과 학습만족이 매개하는 모형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Shrout & Bolger, 2002). 이는, 기존의 매개효과 검증이 가질 수 있는 간접효과와 표준오차를 반복적으로 추출하는 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여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본다. 변인들 간의 직·간접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

었다.

먼저 핵심역량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직접경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B = .191, p < .001$), 핵심역량이 비대면 학습만족을 통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간접 경로($B = .05, 95\% \text{ CI } [.026, .079]$)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핵심역량 수준이 높을수록 비대면 수업환경에서의 학습만족 수준이 높아져서 대학생활적응 수준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와 반면에 핵심역량이 비대면 학습몰입을 통하여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 = -.001, 95\% \text{ CI } [-.0123, .018]$).

하지만 핵심역량이 비대면 학습몰입과 비대면 학습만족의 순차적 매개를 통해 대학생활적응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 = .035, 95\% \text{ CI } [.016, .057]$). 이러한 결과는 핵심역량과 대학생활적응간의

표 3. 직·간접효과

Model Pathway	B	SE	t	95% CI	
				Lower	Upper
Total effect of 핵심역량 → 대학생활적응	.275	.028	9.782***	.220	.331
Direct effect of 핵심역량 → 대학생활적응	.191	.029	6.651***	.135	.248
Indirect Effect		B	SE	95% CI	
				Lower	Upper
Total indirect effect		.084	.018	.050	.120
핵심역량 → 비대면 학습몰입 → 대학생활적응		-.001	.010	-.023	.018
핵심역량 → 비대면 학습만족 → 대학생활적응		.05	.014	.026	.079
핵심역량 → 비대면 학습몰입 → 비대면 학습만족 → 대학생활적응		.035	.011	.016	.057

주. $N = 275$. *** $p < .001$.

관계에서 비대면 학습몰입은 단독으로 매개역할을 하지 않지만, 학습만족을 통해서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핵심역량 수준이 높을수록 비대면 학습몰입 수준이 높고, 비대면 학습몰입이 높을수록 비대면 학습만족 수준이 높아지며, 이는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 수준을 높인다는 것을 나타낸다.

논 의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환경으로 인해 대학생들의 핵심역량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학생의 핵심역량 수준에 따른 비대면 수업환경에서 학습몰입과 학습만족을 통해 대학생활적응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1년 2학기에 비대면 수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울 소재의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 분석을 위해 참여자 275명의 응답을 사용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해 급작스럽게 변한 대학환경에서도 높은 핵심역량 수준을 가진 학생들이 더욱 적응적으로 대처하여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높다는 이경아와 손희원(2021)의 연구결과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이는 핵심역량이 사회진출 뿐만이 아니라 대학 내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과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만, 핵심역량이라는 개념은 대학에서 새로운 각광받고 있지만, 효과성에 대한 논의와 핵심역량기반 교육 도입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백승수, 2020). 하지만 핵심역량은 안정적인 요인이 아닌 성장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밝혀진 바가 있음에 따라(이애화, 최명숙, 2014), 대학은 핵심역량을 인재상을 설정하고 측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핵심역량 강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여 대학 차원에서 학생들의 역량수준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방안과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학문적인 측면에서도 이제까지 핵심역량은 결과 변인으로서 측정의 영역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지만(김지원, 2019; 이연주, 임경수, 2021), 앞으로는 선행변인 혹은 조절변인으로서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여 어떤 맥락에서 학생들 간의 차이점이 발생하는지 탐구해야함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수업환경에서 높은 학습몰입을 경험할수록 학습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적의 학습경험 속에서 이루어지는 고도의 집중상태의 몰입은 학습만족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박성익, 김연경, 2006; 임종미 외, 2021)의 주장을 지지한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수업환경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사적인 공간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며 제한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기에 대면 수업과는 다른 환경이 주어진다(박상훈, 한송이, 2020). 이러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자가 학습활동 자체를 보상으로 여기고 학습몰입을 경험한다면, 학습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교수자는 비대면 수업환경에서도 학생들의 학습 참여를 유도하고 집중되는 수업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보다 질 좋은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녹화강의 보다는 실시간 원격수업을 통해 학생들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격

려해야 한다. 또한, 대학에서는 대학생들의 학습몰입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반면, 본 연구에서 비대면 수업환경에서의 학습몰입은 대학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몰입이 대학생활적응을 긍정적으로 예측하는 변인이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상반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노수림, 배성아, 2014; 이숙정, 2011). 즉, 비대면 수업환경에서의 학습몰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학생활이 제한적인 상황에서의 대학생활적응을 직접적으로 예측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가 비대면 수업환경에서의 학습몰입과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학생활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살펴본 연구이기에 이러한 환경적인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환경은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감소되고, 강의실과 같은 학습장소가 아닌 학습에 방해되는 요소가 많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대학생들의 몰입 수준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대학생활적응은 학업적 적응뿐만 아니라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신체적 적응, 대학에 대한 애착과 같은 다차원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Baker & Siryk, 1984).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는 학업적 적응을 제외한 다른 요인들의 경우 정확히 측정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이로 인해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나오지 않았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 분석된 대상자들은 코로나 신입생이라고 불리는 1학년과 2학년이 다수 포함됨에 따라, 아직까지 학습몰입을 경험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대학생활적응에서 또한 낮은 수준을 보였을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은 비대면 수업환경에서 경험하는 몰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마련해야 하며, 후속 연구에서는 대학생활적응을 단일 요인으로 보기보다 하위변인으로 나누어 보는 것을 제언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수업환경으로의 전환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물리적인 공간을 공유하지 않음에 따라 학생들의 집중과 몰입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김남일, 2020), 핵심역량이 높은 학생들의 경우 학습몰입과 학습만족을 통하여 대학생활에 적응적이라는 것을 나타냈다. 본 연구결과는 다양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의 바탕이 되는 핵심역량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비대면 학습몰입이 높고(김기홍, 2019; 홍효정, 2020), 비대면 학습몰입이 높을수록 비대면 학습만족이 높아져 더욱 적응적인 대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과 같은 흐름을 보인다(김기홍, 2019; 김신향, 백민자, 김경화, 2021; 신재한, 정혜윤, 2015; 임종미, 홍효정 2020). 구체적으로 수업환경의 변화는 학생들의 학업적응의 어려움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이경아, 손희원, 2021), 핵심역량 수준에 따른 차이는 학생들이 학습몰입과 학습만족 같은 내적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대학은 비대면 교육환경에 맞게 수업을 효과적으로 구축하여 학생들이 유의미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재 대학은 위드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며 코로나19로 인한 제한이 점차적으로 풀려감에 따라 대면수업을 재개하였다(KBS NEWS, 2022).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대학은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이 병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대학은 비대면 수업환경에서 문제

점으로 꼽아져왔던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제한된 소통(주영진 외, 2020), 학생들의 학습만족을 저해하는 녹화강의(김보영, 2020), 그리고 온라인 강의 수강을 위한 장소 확보(이승현, 함승환, 2021)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환경에서도 대면 수업과 같은 몰입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대학에서 신입생들에게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교육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수업에서 원하는 바를 조사하여 적용하는 방안 등이 있다. 또한, 학생들의 핵심역량 수준에 따라 경험하는 학습몰입과 학습만족이 다를 수 있음에 따라, 대학에서는 핵심역량 수준이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핵심역량 수준을 기를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적응적인 대학생활을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핵심역량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비대면 수업환경에서의 학습몰입과 학습만족이 미치는 영향에 순차적 매개효과를 제시하였다는 학문적 시사점을 제기하였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수도권 소재의 한 대학에서 나온 자료로 나온 결과임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대학생들의 핵심역량 수준과 다른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연구 참여자의 확대가 필요하며, 반복적인 측정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비대면 수업 방식에 따른 차이점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비대면 수업의 강의방식이 녹화 강의와 실시간 원격수업에서

의 학생들의 학습몰입이 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강의방식을 분석하고 강의방식에 따라 학습몰입 수준의 차이와 핵심역량과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생활적응은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신체적 적응 그리고 대학에 대한 애착과 같은 다차원적인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다(Baker & Siryk, 1984). 하지만 본 연구는 핵심역량 수준에 따른 비대면 수업환경에서의 인지적·정서적 경험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대학생활적응을 단일 요인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대학생활적응을 하위변인으로 나누어 비대면 수업환경에서의 경험이 대학생활적응의 어떤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지 심층적인 연구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는 학년 및 전공에 따라 비대면 수업환경에서의 학습몰입과 학습만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으로 중단 및 질적 연구를 통해 영향력의 크기와 의미를 살펴보는 심층연구가 필요하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은 대학, 교육자 그리고 학생 모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전 세계적 감염병 발병으로 인한 급작스러운 교육 환경 변화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점차적으로 대학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교육 시스템이 도입되었다(임철일 외, 2020).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2022년 현재 다양한 교육 인프라가 만들어지며 안정적인 교육 여건으로 개선되었다(임지은, 양혜리, 2021). 이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 해결책이라 볼 수 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개선된 교육 방식과 새로운 환경 적응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새로운

교육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강미영 (2012). 대학생의 취업준비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취업탐색행동, 스펙5종별 준비정도의 조절효과.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교육부 (2020. 3. 2).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교육 분야 학사운영 및 지원방안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 교육부 (2020.04.01). 모든 학생을 위한 원격교육 환경 구축에 총력. Retrieved from <https://www.moe.go.kr/boardCnts/fileDown.do?m=020402&s=moe&fileSeq=16888ec0d9d6f4cf56a71404af510cb7>
- 김기홍, 이경희 (2020).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 학습몰입,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핵심역량 간의 구조 관계 분석. 열린교육연구, 28(4), 117-143.
- 김남일 (2020). 비대면 원격수업 만족도에 대한 조사 연구 - k대학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1(5), 1145-1158.
- 김남희 (2021).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대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따른 학습 만족도 및 성과 연구. 역량개발 학습연구, 16(1), 169-199.
- 김동일, 오현석, 송영숙, 고은영, 박상민, 정은혜 (2009). 대학 교수가 바라본 고등교육에서의 대학생 핵심역량: 서울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10(2), 195-214.
- 김보영. (2021). 코로나19의 시대, 사회서비스의 정책적 과제와 비전에 대한 탐색. 비판사회정책, 70, 43-71.
- 김성국, 서상원, 서주영 (2020). 조리실습 온라인교육 서비스품질이 학습자 만족과 학습 지속의도와와의 관계 연구. 관광경영연구, 100, 49-68.
- 김성환, 이종훈 (2014). 공기업 직원의 자기효능감, 창업동기, 창업의지 간의 구조 관계 분석. 벤처창업연구, 9(6), 91-99.
- 김수연, 조한익 (2013). 사범계열 대학생들의 성취목표지향성, 기본욕구만족, 학업성취도 및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0(2) 307-328.
- 김안나, 이병식 (2003). 대학생들의 핵심능력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환경 요인 분석. 한국교육, 30(1), 367-392.
- 김연정 (2022). 코로나 19 시대 대학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 경험.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6), 121-134.
- 김은정, 이정윤, 오경자 (1992). 자기 지각, 사회적 지지 및 대처 행동이 대학생활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 525-534.
- 김지원 (2019). 대학생용 핵심역량 진단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현욱, 이현민 (2021).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 도구 개발. 教育學研究, 59(2), 307-331.
- 김혜영, 박소연, 이숙정 (2021). 코로나 위기가 대학생역량에 미치는 영향과 대학의 준비.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2(10), 686-693.
- 김혜영, 유지현, 이숙정 (2021). 핵심역량기반 교양교육 실현에 관한 제언. 교양기초교육연구, 2(1), 83-103.

- 남교민, 노윤정, 김민영, 김동희, 송지훈 (2021). 대학생들의 학습몰입과 학업중단계획의 관계에서 대학생활적응과 긍정심리자본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8), 193-209.
- 문유선, 이상미, 문소연, 김하예슬 (2021).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대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따른 학습 만족도 및 성과 연구. *역량개발학습연구(구 한국hrd연구)*, 16(1), 169-199.
- 박레아, 양명희 (2019). 대학생의 핵심역량과 자기조절학습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4), 89-97.
- 박레아 (2016). 자기조절학습과 대학생 핵심역량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상훈, 한송이 (2020). COVID-19 상황에서 이전 온라인 학습 경험 여부에 따른 대학생의 학습 동기 차이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1), 911-934.
- 박성익, 김연경 (2006). 온라인 학습에서 학습몰입요인, 몰입수준, 학업성취 간의 관련성 탐구. *열린교육연구*, 14(1), 93-115.
- 박인숙, 전해나 (2018). 간호대학생의 대학생 핵심역량이 스트레스 대처 및 문제해결 능력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핵심역량교육학회 학술대회지*, 4, 53-78.
- 박정혜, 강세원, 전은미 (2022). 일 지역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생활스트레스, 진로장벽,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한국자료분석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1(2), 13-15.
- 박지혜, 이영선 (2018). 이러닝학습에서 실재감, 학습만족도, 학업성취도의 관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3(11), 229-238.
- 배성아, 노수림 (2014). 대학의 동료 튜터링 프로그램 운영 사례 연구: 튜터의 경험과 인식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3), 247-277.
- 배양자, 박순희 (2019).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셀프리더십, 학습몰입, 진로적응성 간의 관계에 관한 융합연구. *융합정보논문지*, 9(6), 104-111.
- 백승수 (2020). 핵심역량기반 교양교육의 당면과제와 개선 방향. *교양교육연구*, 14(3), 11-23.
- 송윤정, 조규관 (2016). 대학생의 내재적 전공선택동기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와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매개효과. *한국교육문제연구*, 34(4), 61-77.
- 송윤희 (2014). 대학 이러닝 학습자의 완벽주의, 자기효능감, 몰입, 학업성취도 및 만족도와 의 관계. *평생학습사회*, 10(2), 105-123.
- 송진열 (2017). 대학생의 대인관계와 사회적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8(12), 335-345.
- 양시윤, 박영신, 장미숙, 안현아, 김경이 (2018). 대학의 자율적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이대학생의 핵심역량과 학업역량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9), 141-164.
- 양지선, 유태명 (2015). 역량중심 교육과정에서의 핵심역량 요소와 가정과 교육과정과의 연관성 연구. *한국기정과교육학회지*, 27(3), 1-18.
- 연합뉴스 (2020, August 31). 공과대학 비대면수업, 준비시간 많이 들고 효과는 떨어져. Retrieved March 18, 2022, from

- <https://www.yna.co.kr/view/AKR20200830066900017>
- 유민우 (2021). 대학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 강의 유형과 교과유형의 수업만족도와 학습실재감에 대한 상호작용 분석. *국내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유지은, 김현진 (2019). 국내 대학에서 핵심역량의 의미 탐색. *한국교육공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9(1), 91-98.
- 유현숙, 고장완, 임후남 (2011).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및 종합적 사고력에 영향을 주는 학습과정 요인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9(4), 319-337.
- 이경아, 손희원 (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과 핵심역량에 대한 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2(5), 239-254.
- 이광훈, 최홍섭 (2017). 핵심역량 뉴스포츠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의 체육수업 태도 및 만족도 변화.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22), 701-719.
- 이병식, 최정운 (2009). 대학졸업자의 취업성과에 대한 개인 및 대학특성 영향요인 탐색. *한국교육*, 36(1), 191-215.
- 이성하, 최명숙, 정진화 (2020).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 요인 타당화 연구: A대학교의 인재 특성 및 학생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교육방법연구*, 32(4), 627-650.
- 이숙정, 유지현 (2008). 대학생의 학업 및 진로 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교육심리연구*, 22(3), 589-607.
- 이숙정 (2011). 대학생의 학습몰입과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5(2), 235-253.
- 이승현, 함승환 (2021).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생의 강의만족도 재분석: 온라인 학습 참여의 장소의존성 역설. *열린교육연구*, 29(1), 71-91.
- 이애화, 최명숙 (2014). 국내 대학생 핵심역량과 그 진단도구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교육공학연구*, 30(4), 561-588.
- 이연주, 임경수 (2021).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활용한 대학 신입생 적응 프로그램 사례연구. *교양교육연구*, 15(4), 217-231.
- 이은주 (2001). 몰입에 대한 학습동기와 인지 전략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5(3), 199-216.
- 이장익, 김주후 (2012). 대학생의 핵심역량과 학업성취도 관계성에 대한 분석연구. *職業教育研究*, 31(2), 227-246.
- 이재명 (2009). 정서표현갈등과 자기효능감 및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상담평가연구*, 3, 1-18.
- 이종훈, 김성환 (2015). 학습공동체에서 성인학습자의 학습참여동기, 학습만족도, 학습성과 간의 구조관계 분석. *기업교육과인재연구*, 17(2), 1-29.
- 이지혜, 문용린 (2011). 도덕성 발달 연구를 위한 역량중심 접근의 개념화. *人間發達研究* 18(2), 227-254.
- 이혜은, 이순희 (2021). 코로나(COVID-19)로 인한 대인관계변화와 대처경험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6), 405-417.
- 임경수, 이연주 (2021). Rasch 모형을 적용한 대학생 핵심역량의 동형진단도구 개발: K대학교 핵심역량진단도구를 중심으로. *교육혁신연구*, 31(2), 243-266.

- 임영미 (2019). 대학생의 유연대처기술, 자아정체감 및 진로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삼육대학교.
- 임종미, 김신향, 백민자, 김경화 (2021). 대학생의 학습몰입, 자기주도학습, 학습성도가 비대면 온라인 수업만족도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9(4), 393-401.
- 임지은, 양혜리 (2021). 코로나 19 상황에서 대학 교수자의 온라인 수업 경험 탐색. 교육정보미디어연구, 27(2), 371.
- 임지은, 이민혜 (2020). 온라인 학습자가 인식하는 실재감이 자기조절효능감과 주도적 참여를 매개로 성취도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방법연구, 32(3), 461-485.
- 임철일, 김민지, 박주현, 배유진, 염지윤 (2021). 대학에서의 실시간 비대면 수업 유형별 수업설계 전략에 관한 사례연구. 교육공학연구, 37(2), 459-488.
- 임철일, 송유경, 홍수민, 박찬실 (2020). 교수체제설계를 위한 래피드 프로토타입(rpisd) 모형 적용 및 개선에 관한 연구. 교육공학연구, 36(3), 589-617.
- 장연주 (2008). 성인애착이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전선영 (2013). 성인학습자의 학습자특성과 교육기관특성이 평생교육 참여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 정명기 (2010). 대학생의 핵심역량, 대학생활적응,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 정애경, 김지심, 김정화 (2013). 대학생의 자기존중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가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 공학교육연구, 16(6), 11-18.
- 정연택 (2022).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기업교육에서 교수자-학습자, 학습자-학습자, 학습자-비대면 실시간 교육시스템 간 상호작용이 학습몰입을 매개로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혜윤, 신재한 (2015). 초등학생의 사이버가정학습에서 학습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敎員敎育, 31(2), 269-286.
- 조미경, 김미영 (2018).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학업성취도가 핵심역량, 학습동기와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9(3), 161-170.
- 조선비즈 (2021). 회식금지에 재택근무 확대"... 오미크론에 놀란 기업들, 방역 지침 강화. Retrieved March 15, 2022, from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1/12/03/FVWVPSNEB5F6VCCQKWGDIZJXLY/>
- 주영진, 박동숙, 정금희, 손새로, Jing, Q. (2020). 온라인에서 보낸 한 학기: 디지털대면수업, 그 경험의 의미. 교육공학연구, 36(스페셜), 805-838.
- 중앙일보 (2021). "등록금 돌려달라" 소송에... 대학들 "코로나에 돈 더 썼다". Retrieved March 15, 2022, from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90271#home>
- 중앙일보 (2021, October 26). 코로나로 빨간불 켜진 경제성장률... '위드코로나'로 4% 달성?. 중앙일보. Retrieved March 15, 2022, from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8293#home>
- 진미석, 손유미, 주휘정 (2011). 대학생 핵심역

- 량 진단체제 구축 방안 연구. *교육행정학 연구*, 29(4), 461-486.
- 진미석 (2013). 수도권 및 지방대학생 핵심역량의 격차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23(1) 105-127.
- 최병삼, 박찬수, 우정원, 이성원 (2016). 연구개발서비스업 혁신역량 강화방안 기획연구. 정책자료, 1-141.
- 최부기, 전주성 (2011). 사이버대학 학습자들의 사회적 실재감, 수업만족도, 학업성취도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2(4), 315-334.
- 최현철, 김수동 (2022). 학생성과 제고를 위한 학부교육실태(k-nsse)조사, 핵심역량진단, 대학생활적응진단 간 통합 연계 분석 연구: D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 연구*, 69(0), 15-35.
- 최현실 (2021).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신입생의 비대면 수업 경험에 대한 연구. *교양교육 연구*, 15(1), 273-286.
- 하병학, 김경이, 박영신, 송성욱, 안현아 (2016). 대학생의 핵심역량이 학교생활 및 학업생활에 미치는 영향. *한국핵심역량교육학회 학술대회지*, 3, 5-24.
-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21).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Retrieved March 15, 2022, from http://kapup.org/sub/sub03_02.php?boardid=edu2&mode=view&idx=138&sk=&sw=&offset=&category=%ED%95%99%EC%83%9D&goPage=
- 홍성연, 유연재 (2020).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원격교육환경에서 학습성과 영향 요인 분석. *교육공학연구*, 36(스페셜), 957-989.
- 홍세훈 (2021). 간호대학생의 코로나(COVID-19) 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고립감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20), 301-310.
- 홍효정 (2020). 프로젝트학습 경험이 대학생 핵심역량과 학습몰입에 미치는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0), 789-816.
- 황바른 (2021). 이러닝(e-learning) 환경에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황선희, 박매란 (2021). 대학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화상강의에서 학습 몰입 및 학습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Multimedia Assisted Language Learning*, 24(2) 130-153.
- 황수영 (2021). 대학생의 핵심역량이 대학생활 적응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 D대학의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6), 85-100.
- 황승연 (2022). 코로나19로 인한 단절로 대학생들이 느끼는 외로움이 자아존중감 및 대학생활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배재대학교 교육대학원.
- 황혜지 (2017). 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광주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 Baker, R. W., & Siryk, B. (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2), 179-189.
- Bao, W. (2020). COVID-19 and online teaching in higher education: A case study of Peking University. *Human Behavior & Emerging Technology*, 2, 113-115.
- Casner-Lotto, J. (2006). *Are they really ready to work?: Employers' perspectives on the basic knowledge and applied skills of new entrants to the 21st Century U.S. workforce*. Conference Board.

- Chen, P., Gonyea, R., & Kuh, G. (2011). Learning at a Distance: Engaged or Not?. *Innovate*, 4.
- Csikszentmihalyi, M. (1990).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4(1), 93-94.
- Demuyakor, J. (2020). Coronavirus (COVID-19) and online learning in Higher Institutions of Education: A survey of the perceptions of Ghanaian international students in China. *Online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Media Technologies*, 10(3).
- Dodd, R. H., Dadaczynski, K., Okan, O., McCaffery, K. J., & Pickles, K. (2021). Psychological wellbeing and academic experience of university students in Australia during COVID-19.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8(3), 866.
- Grus, C. L. (2012). The supervision competenc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41(1), 131-139.
- Hayes, A. F. (2012). *PROCESS: A versatile computational tool for observed variable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modeling* [White paper]. Retrieved from <http://www.afhayes.com/public/process2012.pdf>
- Hayes, A. F. (2013).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education*.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s, 120.
- Hill, K., & Fitzgerald, R. (2020). Student perspectives on the impact of Covid-19 on learning. *AISHE-J*, 12(2), 1-9.
- Hoffman, D. L., & Novak, T. P. (1996). Marketing in hypermedia computer-mediated environments: Conceptual foundations. *Journal of marketing*, 60(3), 50-68.
- Händel, M., Stephan, M., Gläser-Zikuda, M., Kopp, B., Bedenlier, S., & Ziegler, A. (2020). Digital Readiness and its effects on higher education students' socio-emotional perceptions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Research on Technology in Education*, 54(2), 267-280.
- Joo, Y. J., Lim, K. Y., & Park, S. Y. (2010). Investigati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organisational support, learning flow, learners' satisfaction and learning transfer in corporate e-learning.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42(6), 973-984.
- KBS NEWS. (2021년 10월 27일). '위드 코로나' 앞두고 대학가 대면 강의 시작. KBS NEWS. Retrieved from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10914>
- Li, X., Fu, P., Fan, C., Zhu, M., & Li, M. (2021). COVID-19 stress and mental health of students in locked-down college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8(2), 771.
- Rahiem, M. D. (2020). Technological barriers and challenges in the use of ICT during the COVID-19 emergency remote learning. *Univers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8(11B), 6124-6133.
- Flores, M. A., & Swennen, A. (2020). The COVID-19 pandemic and its effects on teacher education. *Europe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43(4), 453-456.
- Nakamura, J., & Csikszentmihalyi, M. (2002). The

- concept of flow. In C. R. Snyder &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 89-105). Oxford University Press.
- OECD. (2005).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Executive Summary*. Paris. OECD.
- Pandya, A., & Lodha, P. (2021). Social connectedness, excessive screen time during COVID-19 and mental health: A review of current evidence. *Frontiers in Human Dynamics*, 3.
- Preacher, K. J., & Hayes, A. F. (2004). SPSS and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36(4), 717-731.
- Rathunde, K. (2003). A comparison of Montessorian and traditional middle schools: Motivation, quality of experience, and socio context. *Nanta Journal*, 28(3), 12-53.
- S. Y. Jang. (2016). Analysis of the impact of college life on the core competencies of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Skinner, E. A., & Belmont, M. J. (1993). Motivation in the classroom: Reciprocal effects of teacher behavior and student engagement across the school year.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5(4), 571-581.
- Spencer, L., & Spencer, S. M. (1993). *Competence at work: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John Wiley & Sons.
- Sumaedi, S., Bakti, I. G. M. Y., & Metasari, N. (2011). The effect of students' perceived service quality and perceived price on student satisfaction. *Management Science and Engineering*, 5(1), 88-97.
- Watkins, R., Leigh, D., & Triner, D. (2004), Assessing Readiness for E-Learning. *Performance Improvement Quarterly*, 17, 66-79.
- Webster, J., Trevino, L. K., & Ryan, L. (1993). The dimensionality and correlates of flow in human-computer interaction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9(4), 411-426.
- Weinert, F. E. (2001). Concept of competence: A conceptual clarification. In D. S. Rychen & L. H. Salganik (Eds.), *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pp. 45-65). Hogrefe & Huber Publishers.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Sage Publications, Inc.
- 원 고 접 수 일 : 2022. 03. 30.
수정원고접수일 : 2022. 06. 24.
최종게재결정일 : 2022. 09. 28.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Core Competencies and College Adjustment: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Learning Flow and Learning Satisfaction in Remote Learning Environment

EunKyung Noh

Ki-Hak Lee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learning flow and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core competencies and college adjustment. Data was collected through an online survey of college students attending Y University in Seoul in the second semester of 2021. Incomplete and otherwise unacceptable response sets were excluded such that responses from 275 students (85 male, 30.9%; 189 female, 68.7%; 1 prefer not to respond, 0.4%) were included in the final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learning flow and learning satisfaction sequen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re competencies and college adjustment, that learning flow was not correlated with college adjustment, and that learning flow did not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ore competencies and college adjustment. These results provide new insights into the importance of core competencies and the mechanisms between learning flow and learning satisfaction in the remote learning environments, which have important practical implications for developing the interventions to help college students adapt to college life.

Key words : Core Competencies, College Adjustment, Learning Flow, Learning Satisfaction, Remote Learning Environment